

브라질, 광산법 개정추진을 통한 외국인 투자확대 검토중

- 브라질 광물에너지부는 지난 1967년 제정된 광산법을 개정해 외국업체에 국경지대에서 광산 개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,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
 - 현재 시행 중인 광산법에 따르면 국경지대 치안 유지와 주권 문제 때문에 외국업체들은 국경지대에서 150km 이내에 위치한 광산은 개발이 불가
 - 이에 따라 브라질 국토의 약 13%에 해당하는 약 1,100만 헥타르가 외국업체의 광산 개발이 금지돼 있는 지역
- 한편, 브라질 정부는 외국업체에 국경지대 광산개발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개발한 광물을 브라질 국내에서 가공하는 것을 의무화할 전망
 - 국경지대에서 철광석 개발을 허가받은 업체는 국내에서 철광석을 적어도 선철(iron pig) 단계까지 의무적으로 가공해야 하며, 가공하지 않은 철광석 상태로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
 - 또한 브라질 정부로부터 광산 개발권을 허가 받은 업체는 개발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광산 프로젝트에 사용할 재원의 융자가 가능할 전망이며, 은행은 파이낸싱 대가로 광물 매장량을 비롯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 권리를 갖게 됨
- 아울러, 현재는 DNPM(Departamento Nacional de Produção Mineral : 광물생산관리국)이 브라질 광업분야를 총책임지고 있으나 향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설립돼 DNPM을 대체할 예정

□ 한편, 브라질 광물에너지부는 여타 국가의 광물세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광물 개발세(로열티) 2%를 3%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

※ 칠레나 중국·인도네시아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 광산개발 업체에 부과하고 있으며, 호주는 보크사이트·망간·다이아몬드 등을 개발할 경우 매출액의 7.5%를 세금으로 납부

<브라질 광산개발 투자계획>

투자 업체	투자액(달러)	투자 내용
CVRD	25억	Carajás 광 철광석 생산량 증대
CVRD/Hydro	22억	알루미늄 정제소(Refinery) 건축
Aloca	16억	Juruti 광 보크사이트 개발 위해 항구, 도로, 철도 등 기본 인프라 구축
CVRD	11억	Salobo 광 개발
Copebrás/Anglo	10억	Catalão 광 인산염 생산 증대
Anglo American	3,000만	Copebrás가 방출하는 니오븀 재사용 프로젝트
Anglo American	15억	Barro Alto 광의 니켈-철 생산
Rio Tinto	10억	Corumbá 광 생산규모 확대
IFC/Bunge/Yara	3,000만	Anitápolis 인산염 개발 확대
Galvani	3,770만	Santa Quitéria 광 인산염 생산
Yamana Gold	4,070만	Santaluz 지역에 금 생산시설 추가 설립
Mirabela Mineração	2,250만	Ipiaí와 Itagibá에 니켈 개발
Ferrous	60억	광물 생산, 운반로, 항구, 가공시설 등을 하나로 모은 종합단지 건설
Anglo American	23.5억	Minas-Rio 간 광물운송시스템 구축(항구, 운반용 덕트 등)
Anglo Gold Ashanti	3,500만	Cuiabá, Lamego 광 생산 증대
Votorantim Metais	7,630만	아연 생산 증대

자료원 : IBRAM

<상파울루 사무소 제공>